

#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포토보이스방법론을 적용하여

오재록  
윤향미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J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여 동안 8회기에 걸쳐 참여적 행동연구 기법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펼쳤다. 이 방법론의 연구 절차는 사전준비 및 교육, 래포 형성, 주제 논의, 포토보이스 방법 교육, 개별 사진촬영, 주제별 사진 분류 및 발표, 마무리 및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 바쳐 탈북에 성공하였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죄책감에 일상의 삶이 힘겨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심상도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에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더불어 사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설계, 더 많은 대상, 더 풍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주제어:** 포토보이스, 북한이탈주민, 참여적 행동연구

## I. 서론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론(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하나로 Wang & Burris(1994)에서 유래하였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질적 연구방법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이 합의를 통해 주제를 선택하고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어 생각을 표출하는 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론이다(Sanon, et. al., 2014).

이러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자 주도형 방법론으로는 좀처럼 얻기 힘든 시각들을 제공받고 관련 이슈를 사회에 폭넓게 알려 정책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발화점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참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해석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참여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끌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법이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의 이러한 장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김석향, 2003),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폭력적 통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탈북을 감행해 왔다. 이들을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부르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는 2005년 이후 지속적 증가 일로였다. 그러나 2010년에 2,400여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이래 2012년부터는 연간 1,500여명이 입국하는 추세로 안정화되어 있다. 2015년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희망하여 탈북 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8,133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은 19,755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여성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지속적으로 추월해 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1997.1.14.)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 교육을 강화하면서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또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9월 27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추가 대책도 추진해 왔다. 2013년 8월, 2014년 1월, 2014년 5월에도 동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 보다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충격, 언어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형성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면서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편이며, 남한 사람들의 냉정함과 무관심 등 비우호적 태도 속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영수; 1998; 신미녀, 2015; 이선미, 2010; 정연중, 2002; 통일부, 2015).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주거(주택알선, 주거지원금), 취업(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 등), 사회복지(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 특례), 교육(특례 편/입학, 학비지원),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 폭넓은 정착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대학생들의 인식 프레임을 통해 들여다보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북한이탈주민<sup>1)</sup>이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을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

1) 과거에는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자' 호칭을 많이 써왔으나, 부정적 느낌과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2005년부터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통일부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여전히 호칭의 통일성은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법률상의 공식적인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한국에 입국해 있는 탈북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까지 포함한 총칭적인 개념이다(조동운·전병화, 2012).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단위: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남	589	797	405	369	304	2,464
여	1,813	1,909	1,097	1,145	1,092	7,056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6	9,520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75%

\*자료: 통일부(2015a: 160).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3년까지 10여명 내외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연간 5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이후 수백 명 씩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탈북 여건의 악화 등으로 그 수가 조금씩 감소하여 2014년에는 총 1,396명이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2014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희망하여 탈북 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7,518명이었고, 2015년 6월까지 통계로는 28,133명에 이른다(통일부, 2015b). 이 중 여성은 19,755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조동운, 20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원인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요인과 함께 경제적 궁핍과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하는 ‘생존형 북한이탈주민’이 많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연락을 통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유와 희망에 대한 갈망,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불법체류에 따른 신분불안, 브로커 등의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가 ‘준거 틀’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탈북 동기로 기능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의 청소년층은 남한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고 있고, 언어도 남한 말투를 흉내 내는 경우가 있는 등 남한을 동경하여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김명준·임종섭,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경로는 기존의 중국을 경유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는 데에서, 최근에는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몽골,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을 경유하는 이른바 ‘기획입국’ 방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단계인 초기 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단계로 나누고 통일부에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각종 범죄를 경험하거나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왕따의 삶’과 ‘빈곤의 삶’을 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이와 더불어 원정화 간첩사건이나 황장엽 암살조검거사건 등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도 잠복되어 있어 정신적 불안감도 가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체계 및 신변보호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대, 경멸 등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응하는 기간만 해도 5~1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정연중, 2002).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18.3%), 취업 및 직장문제(12.4%), 외로움(11.7%),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11.5%), 언어 문제(8.2%), 문화적 차이(5.7%)라는 조사결과도 있다(안재운, 2005).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이, 노력의 대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온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조동운·전병화, 2011).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도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김석향(2003)은 2002년 8월~10월 국내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61.5%가 남쪽에서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남쪽 사람들이 영어 표현

2) 정착지원금과 임대아파트가 제공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60%가 무직, 직장은 1~2달 또는 1년 내 이직하는 경우가 68%이며, 북한에서의 직업경험은 남한에서는 별 쓸모가 없으며, 정부의 고용지원금제도도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조동운, 2015).

을 너무 많이 써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물건 이름을 모르거나 존댓말 사용 여부 등 언어생활에 있어서 상대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 양상에는 정서적 요인들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양희·신미녀, 2015). 북한이탈주민은 자존심이 높으나 자존감이 낮아 남한 사회 부적응 양상에 정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행복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자존감 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외형적 구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이다(조동운, 2015). 그러므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와 다양화,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제도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 여성 지원을 위한 모성 보호 및 육아지원 강화, 청소년 지원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행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고 안정적으로 착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앞에서 살펴본 대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정연중, 2002). 그러므로 통일시대의 주역이라 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통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하는 접근방법을 새롭게 적용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 이슈에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조사 방법

#### 1. 포토보이스 방법론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은 참여적 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의 일환으로,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개인이 느끼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Wang, 1999). 포토보이스는 Caroline Wang과 Mary Anne Burris가 개발한 참여주도형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관련 작업을 통해 각자의 인식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이재희 외, 2012).

포토보이스 방법론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집단이나 다양한 환경적 상황들을 탐색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국외적으로는 암 생존자, 시에라리온의 어린이 군대, 싱글맘, 홈리스, 히스패닉 이민자, 정신질환자, 학교 속 청소년 문제, 간호사 등 직업적 경험 등의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여 학교사회복지사 등 직업 관련 인식, 지적 장애인 사회 참여, 대학생 대상 수업 인지도, 자신의 노후 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이재희 외, 2012; 이원지·장승희, 2013; 전정식, 2013; 이솔지, 2014).

포토보이스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포토보이스 방법론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사진 촬영 및 장비 사용 교육, 연구 참여자 스스로 주제 선정하기, 주제 관련한 개인별 사진 촬영하기, 그룹 토의와 함께 사진 선별하기,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 붙이기, 함께 토론한 후 다음 주제 정하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논의과정을 통해 사진에 보이는 것, 그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Wallerstein, 1987).

보통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7회기 이상의 연구절차가 진행된다. 이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8회기에 걸쳐 연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다수

회기를 진행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및 여건 상 다수 회기 진행이 어려울 때는 워크숍 등으로 1~2회의 집중 만남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이재희 외, 2012).

## 2. 연구 참여자

일반적으로 포토보이스 방법론에서는 약 7명에서 10명 사이의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Baker & Wang, 2006).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이 합의를 통해 주제를 선택하고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어 생각을 표출하는 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에(Sanon, et. al., 2014), 엄밀한 표집(sampling)을 통한 과학성보다는 개괄적 경향성 파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소수의 진정성 있는 참여자를 통해 기존의 연구자 주도형 방법론으로는 좀처럼 얻기 힘든 시각을 제공받고 관련 이슈를 사회에 폭넓게 알려 정책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데 10명 안쪽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이다(Baker & Wang, 2006).

이 연구에서는 2014년 11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전라북도 소재 J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8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전체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국 소재 대학교로 참여자를 확대시켜야 했으나, 탐색적 연구이기도 하고 물리적·재정적·시간적 여건 상 특정 대학교 학생들만을 참여시켰다.

J대학교 재학생들은 80% 이상이 당해 지역 출신자들로서, 비접경지역에서 자라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 경색기 동안 중등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통일인식도 희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통일교육위원전북협의회, 201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내고 인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든다는 이 연구의 부차적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할 여지가 있다. 다만 특정 단과대학(사회과학대학) 학생들로 참여자를 한정된 것은,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에 대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문외한보다는 전공 특성상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에게서 무엇인가 인식 양상을 추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 찬동하여 관심과 참여를 표현한 학생들은 최초 12명이었다.<sup>3)</sup> 그러나 이 중 4명은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았고 연구에 충실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보아 참여를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선별된 참여자는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었고, 3학년 6명, 4학년 2명이었다. 전공은 행정학 3명, 상담심리학 2명, 문헌정보학 2명, 사회복지학 1명으로 나타났다.<sup>4)</sup>

〈표 2〉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명	성별	나이	학년	학과
1	김○○	남	26	4	행정학
2	최○○	남	24	4	행정학
3	박○○	여	23	3	행정학
4	소○○	남	22	3	상담심리학
5	임○○	여	22	3	상담심리학
6	성○○	남	22	3	사회복지학
7	손○○	여	22	3	문헌정보학
8	이○○	여	22	3	문헌정보학

### 3. 연구진행절차

이 연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8회기에 걸쳐 금요일 오후 1~2시간을 할애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연구주제인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하여 포토보이스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한 절차는 기존 연구가 수행했던 절차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재희 외, 2012; 이원지·장승희, 2013; 김경오, 2014).

- 3)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에게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자들은 통일동아리 회원, 학생회 구성원 등이었다.
- 4) J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는 6개의 학과가 있다. 행정학과,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의 그것이다. 정치학과 및 통일 유관 학과는 없다.

### 1) 사전준비 및 교육

포토보이스 방법론은 참여자 주도형이어서 연구 주제 및 결과물 분석 등은 대부분 참여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으려면 충분한 사전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앞서 8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연구 참여자로서의 자세, 진행과정의 준비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진 촬영은 카메라 대신 휴대폰 촬영으로 대신하게 하고, 가급적 모든 결정은 다수결 원칙을 수용하여 이루어가기로 참여자 모두 합의하였다.

### 2) 래포(rapport) 형성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 간의 래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포토보이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동기부여로써 더욱 더 중요하다. 참여자 간 래포 형성을 위해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임을 통해 서로의 이름을 각인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앞으로 수행할 포토보이스 활동을 위해 자신을 상징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였고 그 사진과 그림을 통해 무엇을 뜻하는지 등을 이야기해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비슷한 사진과 그림,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 3) 주제 논의

본격적인 포토보이스 활동을 위해 주제에 따른 사진작업의 구체적 활동 계획을 논의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8명 모두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게 하였고, 이에 따른 소주제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 4) 포토보이스 방법 교육

자칫 막연히 사진 찍고 이를 통해 단순한 느낌을 주고받는다 고 참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사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포토보이스 방법론에 대하여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의 이론과 구체적인 활용 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 포토보이스 방법론이라는 생소한 기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연구 결과물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 5) 개별 사진촬영

포토보이스 방법론 교육을 통해 참여자 각각의 중요성을 체득한 이후, 각 참여자들은 개별 사진촬영에 들어갔다. 참여자 모두 자신의 일상 주변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면서 연구 주제와 어떻게 연결 지어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재구성하는 자율적 시간을 가졌다. 소주제별 사진 분류와 재구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관련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하였다.

#### 6) 주제별 사진 분류 및 발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찍은 사진을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된 사진 중 모든 참여자들의 느낌과 마음을 잘 표현한 사진을 선정하고 제목을 붙이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하위 주제에 모두 녹아들 수 있도록 순차적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 7) 마무리 및 종합평가

참여자 모두가 함께 작업하여 재구성한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면서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피드백이 제공되게 하였다. 마

무리하는 의미에서 연구 참여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했고, 마치고 난 후 소감은 어떠한지 등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스스로 내려 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포토보이스라는 신선하고 생소한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했고,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친구들과 관심을 가지며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게 된 점에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 각자가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인식들을 표현하면서 <표 3>과 같이 테마별 주제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표 3> 주제 분류와 내용 구체화

구분	주제	소주제
1	희망을 가진 시도, 탈북	유일한 희망
		행복을 찾아서
2	남한에서의 현실, 탈북 후의 고단한 삶	빈털터리
		꺼져가는 촛불
		정체성 혼란
		관심
3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귀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
		소망
		빈자리
4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
		따뜻한 손길

##### 1. 희망을 가진 시도, 탈북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의 심정과 행동들을 “희망을 가진 시도, 탈북”

이라는 주제로 표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진 1>의 ‘유일한 희망’, <사진 2>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소주제로 집약하여 표현하기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처지에서 오로지 일단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으로 보고 <사진 1>과 <사진 2>의 표현에 있어 ‘유일한 희망’, ‘행복을 찾아서’ 등 목숨을 바쳐서라도 탈북을 시도했음을 나타내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북한사람들은 왜 탈북을 하였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는 좀처럼 살아가지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주어진 인간의 생애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면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살던 나라, 고향, 가족을 등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 자체가 자신이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소○○)

“탈북은 죽음을 불사하고 시도하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한다. 오죽 북한에서 살기가 싫었으면 목숨까지 바쳐가며 탈북을 했겠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겠다.”(최○○)

### <사진 1> 유일한 희망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복송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처형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만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김○○)

〈사진 2〉 행복을 찾아서(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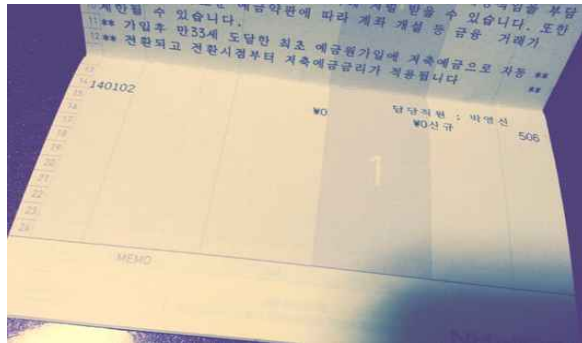


## 2. 남한에서의 현실, 탈북 후의 고단한 삶

두 번째 주제는 탈북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느낌에 대한 인식을 담고자 하였다.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남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한 민족으로서 동화되어 살아 나가기 위한 남한에서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향을 떠난 이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외롭고 힘든 감정과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척박한 삶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한에서의 현실과 탈북 후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사진 3〉의 ‘빈털터리’, 〈사진 4〉의 ‘꺼져가는 촛불’, 〈사진 5〉의 ‘정체성 혼란’, 〈사진 6〉의 ‘관심’ 등이 연이어 채택되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탈북에 비록 성공을 했지만, 만만치 않은 남한의 현실에 부딪치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음을 절감하면서 냉정하게 느껴가는 현실 직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처음에는 남한 정부의 보살핌과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견디며 살아갔지만 이후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도 어렵고 여러모로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 통장에는 ‘0원’이라는 씁쓸하고 막막한 숫자가 표기 되어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을 것이다.”(성○○)

〈사진 3〉 빈털터리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남한에 왔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함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사람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을 꺼져가는 촛불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박○○)

〈사진 4〉 꺼져가는 촛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에 봉착되면서 매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는 잘 온 것일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삭막한 정체성 혼란도 겪을 것이다.”(임○○)

〈사진 5〉 정체성의 혼란



“탈북에는 성공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남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사진 6〉 관심



### 3.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세 번째 주제는 비록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떠나온 고향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수병을 앓게 되고, 특히 명절이 되면 더욱 그리움이 사무쳐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사진 7〉의 ‘귀향’, 〈사진 8〉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진 9〉의 ‘소망’, 〈사진 10〉의 ‘빈자리’ 라는 소주제를 선정



하였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지도 못하는 처절한 신세가 된다. 명절만큼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아 고속버스를 통해 귀향의 간절함을 표현해 보았다.” (손○○)

#### 〈사진 7〉 귀향



“무작정 떠나왔지만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이○○)

#### 〈사진 8〉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이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김○○)

〈사진 9〉 소망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빈자리는 바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추억,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염려일 것이다.” (성○○)

〈사진 10〉 빈자리



#### 4.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

마지막 주제는 위에서 정리한 사진들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주제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에서부터 남한에 살아가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경로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았다면, 네 번째 마지막 주제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우리가(남한사람) 다가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사진 11〉의 ‘우리는 하나’, 〈사

진 12)의 ‘따뜻한 손길’이 소주제로 표현되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과 하나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겠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면 파이팅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싶다.”(박○○)

〈사진 11〉 우리는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자라는 낙인으로 평생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그들의 마음을 동정이 아닌 진실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노력이 필요하다.”(소○○)

〈사진 12〉 따뜻한 손길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J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여 동안 8회기에 걸쳐 참여적 행동연구 기법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펼쳤다. 이 방법론의 연구 절차는 사전준비 및 교육, 래포 형성, 주제 논의, 포토보이스 방법 교육, 개별 사진촬영, 주제별 사진 분류 및 발표, 마무리 및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 바쳐 탈북에 성공하였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죄책감에 일상의 삶이 힘겨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심상도 나타났다. 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표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이유는 살기 힘든 북한을 빠져나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였기 때문이고, 행복을 찾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체제에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북한 상황은 변함없이 자유가 없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으며 가슴 아파 했다. 다만 탈북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원하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정착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사상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보듬어안아야 할 남쪽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이 잦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끼여가는 촛불처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남한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

만 더욱 힘들어 할 것 같은 부분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추억이 서린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동경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명절이 되면 더욱 더 가슴아파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그들의 빈 가슴을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에서부터 정착하기까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온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이방인 취급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존의 연구들처럼 대학생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많은 가운데, 남한 사람들의 냉정함과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일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드러났다고 하겠다(김영수; 1998; 신미녀, 2015; 이선미, 2010; 정연중, 2002).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에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더불어 사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설계, 더 많은 대상, 더 풍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김경오(2014). 중규모 S대학 재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양체육 기반 신체활동의 의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 포토보이스. 『한국체육학회』, 53(3): 107-125.
- 김경오(2013). 중국유학생의 제한적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문제와 개선방안: 포

- 토보이스 연구. 「한국체육학회」, 52(4): 103-116.
- 김경오·이규일(2013). 은퇴한 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장벽과 대안 모색: 포토보이스.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6(3): 25-52.
- 김명준·임종섭(2015).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3(2): 56-87.
- 김석향(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영수(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 125-155.
- 김양희·신미녀(20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사례연구. 「북한학보」, 39(1): 45-71.
- 박광득(2012). 제2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비교 연구. 「통일전략」 12(4): 39-72.
- 박영호(2015).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전망. 「비교민주주의 연구」, 11(1).
- 변중헌(2015). 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47(0): 111-139.
- 신미녀(201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사회과학연구」, 19(1): 87-112.
- 안재운(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솔지(2014). 알코올중독자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 이선미(2015). 북한인탈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디아스포라연구」 9(1): 155-187.
- 이원지·장승희(2013). 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기묘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2): 25-46.
- 이재희·라미영·방실(2012).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표현하는 “일과 나”: 포토보이스 방법론 적용. 「학교사회복지학회」, 23: 157-280.
- 이현주(2015).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243-268.
- 전정식·김경미·유동철·김동기·신유리(2013).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연구. 「지적장애연구」, 15(2): 305-330.
- 전병화·조동운(2012).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12(1): 1-22.
- 정연중(20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동운(2015).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427-450.
- 조동운·전병화(2011).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 291-307.
- 통일교육위원전북협의회(2015). 전주 시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조사.
- 통일부a(2015). 2015 통일백서.
- 통일부b(2015).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
- Sanon, M-A, R. A. Evans-Agnew, and D. M. Boutanic. (2014). An Exploration of Social Justice Intent in Photovoice Research Studies from 2008 to 2013. *Nursing Inquiry*. 21(3): 212-226.
- Wang, C. C. and M. A. Burris. (1994). Empowerment through 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71-186.
- Wang c.(1997). *Burries M.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Behavior.
- Wang c.(1999). Photovoice: A Pa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 Wallerstein, N. 1987. Empowerment education: Freires ideas applied to youth. *Youth Policy* 9: 11-15.
- Baker, T. A., & Wang, C. C. (2006). Photovoice: Use of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chronic pain experience in older adult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10), 1405-1413.

**오재록:**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06)를 취득하고 현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관료제, 정치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 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2011, 한국행정학보, 공저)와 “관료제 권력: 측정 그리고 타당화”(2013, 행정논총, 공저), “정부 조직 개편의 실제 결과”(2014, 현대사회와 행정, 공저) 등이 있고, 저서로는 「관료제 권력구조: 이명박 정부의 41개 정부부처 실증연구」(2012)와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2014) 등이 있다(jaerokoh@gmail.com).

**윤항미:** 원광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2008)를 취득하고 현재 전주대학교 공공관리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유아 교육, 아동 복지, 복지정책, 통일 교육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공저),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갈등 사례 분석”(2014, 한국정책학회, 공저),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 방안”(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공저) 등이 있다(yhmlwk@hanmail.net).

## Abstract

###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A Photovoice Methodology

Jae Rok Oh & Hyang Mi Yun

This study explores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a Photovoice methodology. Photovoice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at is th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of photography the awareness of the symptoms and perceptions into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has been performed by academic researchers and 8 people with university students together during 3 months in 2014 and use a Photovoice method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various aspects of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se pictures and photograph shooting, we could found the themes and recognition system for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o far, university students have felt compassion and had a feeling heart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Photovoice Methodology, North Korean Defectors, Th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